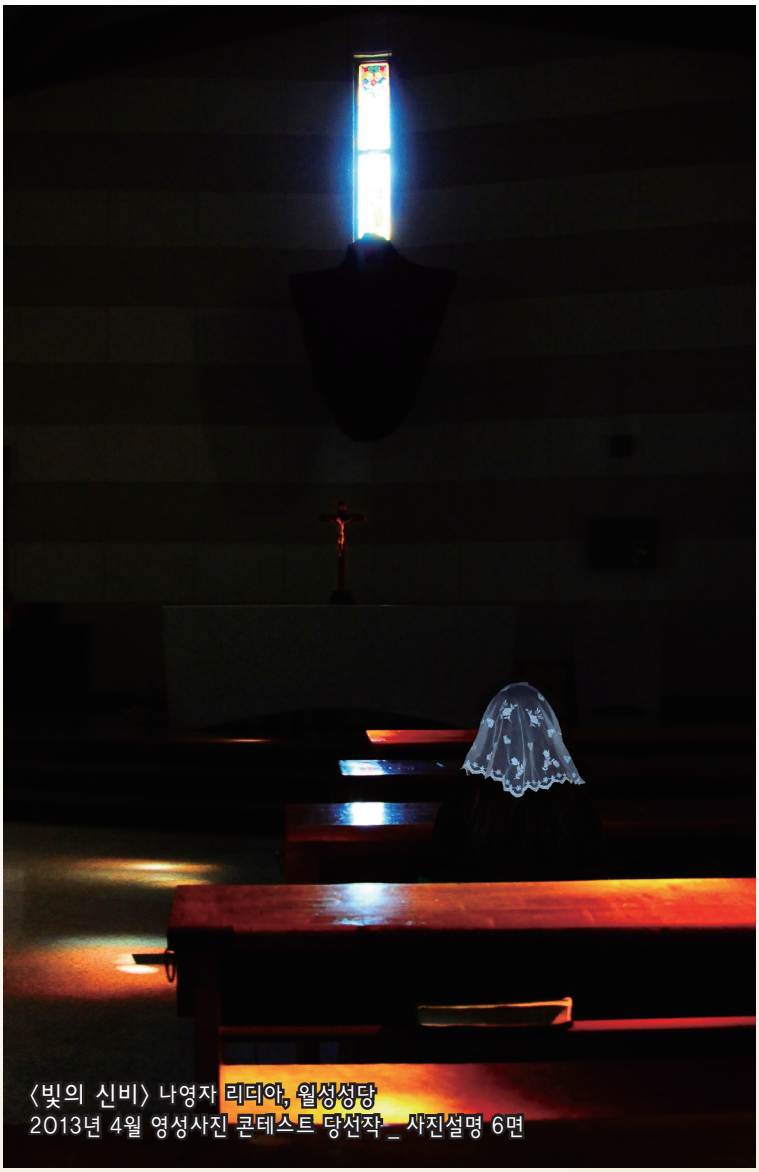
대구주보

삼위일체 대축일(청소년 주일)
2013.5.26.(다해) 제1837호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시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48~9 http://www.daegujubo.or.kr



〈빛의 신비〉 나영자 리디아, 월성성당
2013년 4월 영성사진 콘테스트 당선작_ 사진설명 6면

† 오늘의 전례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요한 16,12-15 참조)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써 아버지와 완전히 같으신 아드님께서 태어나십니다. 아드님은 아버지께 다시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시는데, 이 사랑의 교환으로부터 성령께서 나십니다. 우리는 이 아득한 신비를 머리로는 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지체가 됨으로써 감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제1독서 잠언 8,22-31 **제2독서** 로마 5,1-5 **복 음** 요한 16,12-15

입 당 송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찬미받으소서.

화 답 송 ◎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영성체송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주님 얼굴을 찾고 있사오니

주국진 보나벤뚜라 신부 | 교구 청소년국장

제28차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의식하든 못하든 우리 마음속에는 창조주 하느님께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 주님 얼굴을 찾고 있사오니, 그 얼굴 나에게서 감추지 마옵소서."(시편 27,8-9)라고 하였고, "예수님을 뵙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2,21)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정체성과 진로에 대하여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는 하느님을 뵙고자 하는 바람이 더욱 깊이 내재해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 직업적 성공, 인간적인 사랑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지만 그런 것들은 결코 인간의 가장 깊고 내밀한 갈망을 채워주지는 못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느님을 만날 때에만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하느님을 만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인생을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먼저 성경을 통하여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시편 119, 105)이라고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이 세상의 법이 아닌 하느님의 법을 등불로 삼는다면 삶의 어두운 길을 걸을 때라도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하느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찾는다면 청소년들의 삶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성체성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인생의 학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체 안에 온전히 계십니다.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 성체성사에 참여한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가정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며 청소년들이 삶의 의미와 올바른 인생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건들과 사람들을 통하여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 친구들과 나누는 우정,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배려 등 사랑의 행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배타심과 이기적인 경쟁심이 아닌 하느님의 사랑을 먼저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도 곁들여 주실 것입니다(마태 6,31-34).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하느님의 말씀과 성체성사, 이웃과 나누는 사랑을 통하여 하느님을 만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지면 관계상 이번 주 「신앙의 해 교리 퀴즈」는 쉽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의 제28회 청소년주일 담화문(요약)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마태 28,19 참조)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기쁨과 사랑을 가득 담아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2013년 7월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릴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저는 다시 한 번 이 중요한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삶이 좋은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던지며 삶의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개 젊은이들은 우리 세상의 어려움에 부딪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스스로 묻습니다. 이러한 어둠을 밝히는 것은 믿음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세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첫 선교사들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라는 부르심, 그분을 바라보라는 부르심에 늘 새롭게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께 받은 은총을 헤아려 보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 건네주도록 권고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역사를 새롭게 읽는 법을 배우십시오. 또한 지난 세대에서 전해 받은 훌륭한 유산을 기억하십시오. 선교사가 되려면 이 유산, 곧 교회의 신앙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그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힐수록, 우리는 그분께 다른 이들을 인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은 바로 사랑의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재촉하십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하느님의 사랑의 힘에 여러분을 내어 맡기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떠나’, 곧 자신을 벗어나, 다른 이들에게 ‘가서’ 그들이 하느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이끄십시오.

단순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눕시다. 저는 여러분의 선교 노력이 더욱 절실한 두 분야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분야는 사회 커뮤니케이션, 특히 인터넷의 세계입니다. 미디어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둘째 분야는 여행과 이주입니다. 여기에서도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섭리적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기쁨을 전달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에게 주는 고귀한 선물입니다. 성령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더욱 충실하게 알고 사랑하며 복음을 창의적으로 전파하는 길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복음화는 우리가 주도하지도 않고 우리의 자질에 달려 있지도 않습니다. 복음화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실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화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느님의 힘을 바탕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성사를 삶의 토대로 삼도록 권유합니다. 참다운 복음화는 기도에서 비롯되고 기도에서 힘을 얻습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세계청년대회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다시 열리게 된 지금, 저는 이 대륙의 젊은이들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지닌 신앙의 열정을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전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애정을 담아 교황 강복을 보내 드립니다.

바티칸에서 2012년 10월 18일

교황 베네딕토 16세

신경해설⑤

주 예수 그리스도

문화홍보실

우리가 예수님을 공경하여 부를 때 쓰는 호칭 가운데 가장 자주 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신경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 단어는 신앙 고백의 표현들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또 중심이 되는 말마디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구세주이시고, 저의 주님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느님

‘예수’라는 이름이 주님의 본 이름입니다. 천사가 요셉 성인에게 일러 준 이 이름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 또는 “구원하시는 하느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마태 1,21)하고 말했습니다. 이 이름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왕, 사제, 스승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주님께 드리는 존칭이며, 그리스말로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같은 뜻을 지닌 히브리말이 ‘메시아’입니다. 본래의 말뜻은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늘의 명을 받아 도탄에 빠진 세상을 건져낼 위대한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왕에게, 제사장에게, 또 예언자에게 기름을 발라 그 사람의 직책을 표시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임금이시고 대사제이시며 스승으로서 세상을 하느님과 다시 화해시키시고 하느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며 세상에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주님이신 예수님

예수님 당시에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신하가 임금을 부를 때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도 ‘주님’이었습니다. 주인님이라는 말인데, 내 목숨을 마음대로 할 권리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므로 세상의 이런저런 주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하인에 불과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의 높은 사람들에게는 그 권력 때문에 복종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큰 사랑에 감복한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마치 우리가 주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하인이신 것처럼 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 어머니가 유치원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산만해서 단 3분도... 제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너를 무척 칭찬하셨어, 의자에 앉아있기를 1분도 못 견디던 네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 있는 다고 칭찬하시던 걸~. 다른 엄마들이 모두 엄마를 부러워하더구나!" 그날 아들은 평소와 달리 먹여 달라는 투정도 않고 밥을 두 공기나 뚝딱 비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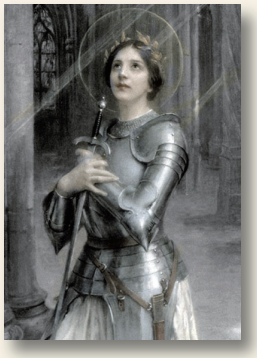
시간이 흘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어머니가 학부모회 모임에 참석했을 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드님 성적이 몹시 안 좋아요.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 말을 듣자 어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넌 결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 21등을 한 네 짝도 제칠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구나." 어머니 말이 끝나자 어두웠던 아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훨씬 착하고 의젓해진 듯 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졸업할 즈음에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드님 성적으로 명문고에 들어가는 건 좀 어렵겠습니다." 어머니는 교문 앞에 기다리던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 아들은 끝내 명문고에 들어갔고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명문대학 합격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대학 입학 허가 도장이 찍힌 우편물을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고는 엉엉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란 건 저도 잘 알아요.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교육 일선에 있는 선생님의 말 한마디와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극명하게 단계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녀들에게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엄마 아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값진 선물입니다.

금주의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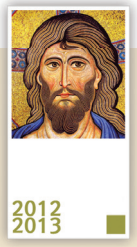
성녀 잔 다르크 (5월 30일)

프랑스의 국가적 영웅으로 '오를레앙의 처녀'라고도 불리는 잔 다르크(아르크의 요안나) 성녀께서는 가난하지만 열심한 가톨릭 신자인 농부의 딸로 태어나셨다. 13세 때 조국을 구하라는 하느님의 계시를 받은 성녀께서는 동정을 서원하시고 백년 전쟁에 참전하시어 프랑스군을 승리로 이끄셨으며 왕세자였던 샤를 7세가 프랑스의 국왕으로서 대관식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하지만 나중에 영국군의 포로가 되신 성녀께서는 이단자로 몰려 화형을 받고 순교하셨다. 성녀께서는 1920년에 베네딕토 15세 교황님으로부터 시성되셨고 프랑스와 군인들의 수호성인으로 공경 받고 있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개교 99주년 기념미사

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5월 15일(수) 오전 10시 효성캠퍼스 교목처 성당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 개교 99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하셨다.

사진 제공 : 대구가톨릭대학교



'신앙의 해' 기념 영성사진 콘테스트 4월 당선작 선정

- **최우수상 : 〈빛의 신비〉 나영자(리디아, 월성성당)**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참히 돌아가신 날, 부활을 준비하며 빛의 신비를 묵상합니다. 어둠을 이기고 빛이 되어 오신 주님의 부활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고 기쁘게 살아야겠습니다.
- **우 수 상** : 〈첫 사제와 고사리손의 기도〉 최종훈(야고보, 청도성당)
- **장 려 상** : 〈저희를 받아 주소서〉 양대원(프란치스코, 상인성당)

매월 참여해주시는 교우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함께 나누는 영성사진 콘테스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사진 콘테스트 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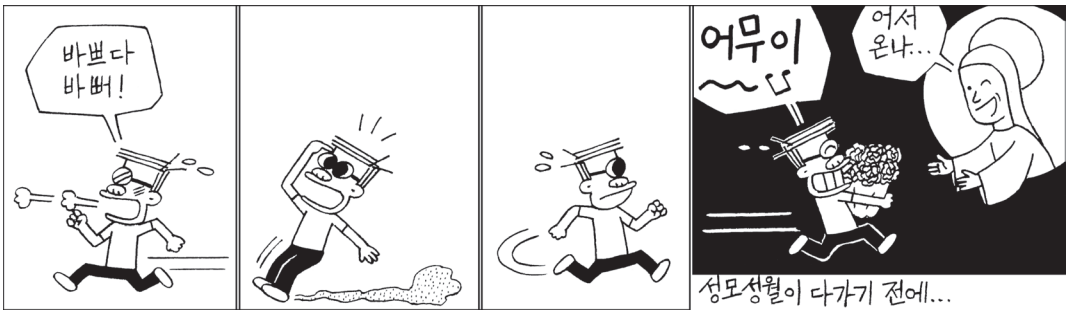
- **공모주제** :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 **참가자격** : 교구 내에 교적을 두고 있는 가톨릭 신자
- **공모기간** : 12. 11. 25.(일) ~ 13. 10. 31.(목)
- **출품방법** : 공식 응모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http://contest.daegujubo.or.kr)

'신앙의 해' 기념 대구주보 교리퀴즈 안내

주님 승천 대축일(5월 12일) '신앙의 해' 교리퀴즈⑤ 정답은 **〈원죄 없으신 잉태〉**입니다.

당첨자 : 이정현(마르코, 옥산), 강신국(가브리엘, 선산), 주현애(마리안나, 중리), 김봉남(소화데레사, 성김대건), 정미숙(데레사, 이곡)

아무리 바빠도 —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구미지역 밀알회 미사	5월 27일(월) 11:00 도량성당	김천지역 학교 복음화를 위한 미사	5월 29일(수) 19:00 황금성당
대구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5월 27일(월) 11:00 계산성당	바뇌기도회 월례미사	5월 30일(목) 13:00 삼덕성당
오순절평화의마을 후원회미사	5월 27일(월) 11:00 수성성당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6월 1일(토) 10:00 프란치스카눔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5월 28일(화) 14:00 계산성당	푸른군대 첫 토요신심미사	6월 1일(토) 11:00 성모당

성소 | 피정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6.9(일) 14:00, 본원
다음카페: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성소상담: 김라우렌시아 수녀, (010)5449-3166

한티순교성지 '예수마음기도' 일일 피정
일시: 5.27(월) 10:00~16:00 미사
지도: 권민자 수녀
문의: (054)975-5151

첫 토요일 성모 신심 피정
일시: 6.1(토) 10:00, 다사성당
주제: 성모님과 예수성심의 일치
일정: 미사, 면담,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
기간: 6.21(금)~23(일), 2박 3일
장소: 베네딕도영성관(사수동)
주제: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나의 삶
대상: 하느님 사랑을 느끼고 싶은 신자
문의: 한국CLC, (02)333-9898

군종후원회 일일 피정
일시: 6.3(월), 교구청 대강당
강사: 정태우(아우구스티노)신부
주제: 신앙의 해와 평신도
문의: 군종후원회, 256-0815

부산 제5차 성경통독 효소단식 피정
기간: 7.12(금)~15(월), 3박 4일
장소: 부산 광안리 성분도 은혜의 집
회비: 32만 원, 주관: 가톨릭교수회
문의: 피정의 집, (051)753-5744
(010)9363-7784 / (010)3806-7784

교육 | 모집

제2기 다도 수강생 모집
첫모임: 5.28(화)
과정: 3개월 12주(정원: 5명)
문의: 프란치스카눔, (070)4266-0047

가톨릭푸름터 취업사관학교 미용자격증반 수강생 모집
기간: 6.1(토)~12.31(화)
대상: 20명(만15세 이상~ 24세 미만의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문의: 764-8536
다음카페: Cum

프란치스코 청년회 모집
일시: 6.9(일) 13:00
장소: 월배 프란치스카눔
문의: (010)4710-8564

가톨릭신문 크루즈 성지순례
기간: 8.23(금)~9.2(월), 10박 11일
3개국: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내측: 508만 원, 오션뷰: 538만 원
발코니: 568만 원(대한항공 이용)
문의: 428-5004, www.cttour.org

미국영어연수 IVY CAMP
기간: 7.21(일)~8.14(수) 25일간
대상: 초 4학년~중 3학년(45명)
주관: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문의: 구립 서초유스센터, (02)3486-0738, www.scy.or.kr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 미혼모 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2007 ISO 9001-2000 품질관리 인증업소, 그 명성과 자부심
엄선된 최상급 식재료와 올리브유, 식물성 기름만을 고집합니다.
품격높은 비지니스 모임, 격조높은 최고의 상견례 명소
CHINESE RESTAURANT 중국요리
자금성®
대표 : 정경숙(스텔라), 황기철(요한)
예약 (053)767-6700 대구 수성구 황금동 LG전자 옆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소변에 거품이 나십니까?
수연합내과
[부설 : 인공신장실]
경북대병원 외래교수 김 건 현(라파엘)
상인역 ☎(053)642-7575

"2대째 30년 전통"
♣ 성 심 결 혼 ♣
국가등록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 전문직종 및 초혼 재혼 다량 확보 *
☎ 644-4007, 558-3003
비산네거리 서부초 옆 류성실(마리아)

SINCE 1975
백두정형외과
의학박사/원장 배 상 근 (베드로)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배 상 영 (미카엘라)
허리통증 인공관절
관절경 수술전문 (어깨 무릎 발목)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구) 배억두 정형외과 T.053)425-5919

스피치! 모든 일의 가장 기본입니다!
Speech.Kim 스피치 킴
스피치킴 교육
리더십&발표력&자신감
스피치킴의 특별한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프리젠테이션, 입시 · 취업 면접, 화술 · 화법
대상 : 유치부~성인
스피치킴 교육 본원(대백 프라자 옆) T.053)421-0213
NAVER 스피치킴 교육 검색 김민지(사비나)

척추 · 관절 및 뇌 · 신경 전문클리닉
백 신경외과 의원
○요통,좌골신경통,목·허리디스크,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류마티스,오십견,근골격질환
○뇌졸중,두통,어지럼증,손발 저림,진전
원장/전문의 백운일(스테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네거리 ☎ 053)628-4111

김영표버섯명가
www.pogokim.com
· 유기농버섯(표고 · 상황) 재배
· 체 험 학 습(견학 · 교육) 농장
· 버섯요리전문점 (Slowfood)
☎ 053)852-7576 남경화(헤레나)
영남대학교역에서 경산IC 방향 5Km 위치

행사 | 모임

한국 가톨릭 젊은이 성령 축제
일시: 6.9(일) 9:00~17:00
장소: 전주교구 성심여고
문의: 대구젊은이성령기도회, (010)5585-9053

제29차 교구 울뜨레야
일시: 6.15(토) 9:30~16:00
장소: 성김대건기념관
문의: 254-4671

미용인의 모임 빛 월례회
일시: 5.20(월) 20:30
장소: 상인성당
문의: (010)8397-9783

교육 | 모집

예비신자 교리반 봉사자 학교 개설(주간)
기간: 6.24(월)~28(금) 13:30~17:00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회합실
수강료: 1인 3만 원(교재비 포함)
신청마감: 6.16(일) 17:00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6

정평위 '함께꿈' 월례미사 및 특강
일시: 6.12(수) 19:30, 1대리구청 강당
주제: 장애인과 함께 한 예수의 삶
강사: 정중규 박사
주최: 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본당사회복지학교〈기본-주일반〉 개설
개강: 6.16(일), 과정: 12시간(총 4주)
대상: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모든 신자
문의: 3대리구 사회복지, 641-3456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 주말
310차: 6.7(금)~9(일), 한티피정의 집
문의: 대구ME, 983-0521
교원들을 위한 에듀힐링 신청 환영

가톨릭근로자회관 화, 목 저녁반 6월 영어성경공부반 모집
개강: 5.30(목) 19:00~20:30
수강료: 월 3만 원
과정: 탈출기, 요한복음
기타: 관덕정 낮반은 시편 강의 중
문의: 253-1313 / (010)2578-5535

관덕정 주관 6월 영성 특강
일시: 6.1(토) 16:00
강사: 옥현진 시몬 주교
문의: 관덕정, 254-0151

가정공동체 회복을 위한 토탈케어서비스
대상: 대구거주자 중독 가정 (알코올, 도박, 약물, 인터넷)
비용: 월 1~2만 원
내용: 전문가상담, 치료연계, 위기개입 등
문의: 대구가톨릭알코올상담센터 638-8778, 638-3778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 과정
기간: 6.10(월)~12(수) 9:00
장소: 대구가톨릭의대 마리아관 강당
신청: 6.3(월)까지
수강료: 3만 5천 원(중식 포함)
대구 505-10-129903-9 완화의료팀
문의: 완화의료팀, 650-4557, 4438

어르신 성경 전문 봉사자교육
일시: 7.2~8.20(매주 화) 13:00~17:30(8주)
장소: 대구 바오로딸 2층
주관: 성바오로딸, 회비: 15만 원
내용: 마태오와 함께 쓰는 나의 복음서
문의: 425-5185 / (010)7449-1117

채용 | 안내

푸른평화 고산 공동체 채용
분야: 고산점 매장판매 및 배송
대상: 주부선호, 운전가능자
위치: 고산역에서 5분 거리
문의: 794-4021 / (010)5891-3339

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이용안내
내용: 가정폭력, 부부갈등, 가족문제 등
이용방법: 전화, 내방, 사이버 상담
문의: 253-1401
http://www.with1401.or.kr

2013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가격: 3천 원(총 90쪽)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8~9

강남피아노 종합악기할인점
중고피아노 고가 매입 조율, 운반, 수리, 매매
☎ 010-3541-8194
053)423-7009
김갑봉 스테파노 (교우님 우대)

미소인치과
원장 이 종 현(프란치스코) 송 선 희(안나)
지하철 범어역 4번 출구
전화상담 053)752-7575 화, 목 야간진료
www.misoindental.com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의 · 원장 정 순 우 (요셉)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척추와 어깨 · 무릎을 치료하는
12 명의 의료진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흠(요한)
T. 630-8000 지하철 1호선 송현역 2번 출구

ANGEL EXPRESS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나가사키성지순례
제3차 6월05일~08일(3박4일)
순례경비 59만 5천원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철래(유스티노)

귀금속 최고가 매입
순금, 백금, 18K, 14K
다이아몬드, 은수저, 치아금
황금점 : 황금동 데레사소비센터 內
복현점 : 복현동 농협 하나로마트 內
(주)한국금은거래소 ☎763-8838

30년 전통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476-9275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우체국 옆 교대역 입구
권종문(파비올라)